

연구와 전시

가을, 하늘은 높고 전시는 풍성하다-국립박물관 특별전
강원 별장에서 나누는 '수집가'와의 마지막 대화

사람과 이야기

한복의 시작점, 국립익산박물관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충주박물관, 첫 삼을 뜨다
“지혜롭고 용기 있게! 친구에게 배웠어요”

박물관신문





02

전국 국립박물관 특별전 모음



12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마지막 지역 순회전



26

국립충주박물관 착공식



28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에서 만난 어린이 관람객

연구와 전시

02

기획

가을, 하늘은 높고 전시는 풍성하다-국립박물관 특별전

12

전시

강원 별장에서 나누는 ‘수집가’와의 마지막 대화

18

학술

동원의 뜻, 연구의 힘

20

학술

같은 듯 다른 삼국의 철기

사람과 이야기

22

박물관 여행

한뼘의 시작점, 국립익산박물관

26

박물관 수첩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충주박물관, 첫 삼을 뜨다

28

인터뷰

“지혜롭고 용기 있게! 친구에게 배웠어요”

31

잠시 멈춤

박물관의 밤, 탐의 시간을 거닐다

32

주요 소식

34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36

박물관문화향연

10월을 가득 채울 밴드 음악 속으로

37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

창간일 1970년 7월 1일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www.museum.go.kr

편집인 김원길

편집위원 강경남 곽흥인 류정한 이민수 이진민 이태희

이현주 전인지 허형욱 황은순 황지현

기획·편집 김미소 명성은 이태연

제호 최순우

디자인 류라인

사진 박재홍

영상 IBC미디어

인쇄 (주)태광피엔디

문의 02-2077-9575

ISSN 1226-038X

THE MUSEUM NEWS VOL. 638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해당 자료 소장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필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국립중앙박물관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콩기를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가을, 하늘은 높고 전시는 풍성하다

깊숙한 폭염을 지나며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
올가을 전국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를 소개한다.



●
국립공주박물관

펼쳐진 책에서 백제의 용을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상상의 동물사전, 백제의 용^龍〉
2024.9.10.~2025.2.9.



1부 '모든 것은 상상^龍에서 시작한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운 힘,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재해를 두려워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존재가 바로 '용'이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에서 발견된 〈용·봉황장식 고리자루큰칼〉과 〈은팔찌〉에 주목했다. 이 전시에서 백제의 용이 어떻게 시작되어 현실 속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 상징성과 의미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것은 상상^龍에서 시작한다

용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 낸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은 여러 동물의 특징을 조

합해 용의 모습을 떠올렸다.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합친 만큼 용이 가진 능력과 의미도 다양해졌다. 〈숙종대왕어필각석〉, 〈일월십이지도〉와 같은 역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타르보사우루스 두개골 복제품과 뱀굴호랑이 등의 동물 표본도 함께 전시하여 용의 생김새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백제 용의 시작과 완성

용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은 용이 있다고 믿었다. 백제의 용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



2부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백제 용의 시작과 완성'

로 구현되었다. 백제의 장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과 미감으로 용을 표현했다. 평면적인 용이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을 나주 복암리 정촌 출토 〈금동신발〉, 서산 부장리 출토 〈금동관모〉, 〈용·봉황장식 고리자루큰칼〉과 〈은팔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동감 있게 표현된 용은 백제의 뛰어난 공예 기술은 물론 백제인들이 용의 본질과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잇다-백제 용의 역할

백제에서 용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들로 용이 백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용은 물과 권

력의 상징으로, 백제의 지배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였다.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용의 상징은 더욱 깊어졌으며, 백제 멸망 이후에도 용 문양은 불교적 의미를 담아 지속되었고, 그 상징적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우리는 복잡하고 낯선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종 책을 집어 들곤 한다. 책은 우리를 가보지 못한 곳으로 안내하며,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백제의 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은 마치 책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전시는 책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되며, 관람객들은 책의 내용을 탐색하면서 백제의 용을 마주하게 된다. 실제 유물과 함께 전시된 다양한 참고 자료와 영상들은 관람객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글자를 새긴 용무늬 은팔찌
백제, 공주 무령왕릉
지름 8.0cm
국보
무령 51

용은 오랫동안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 온 신비로운 존재로서 그 형태와 상징을 명확히 설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백제의 용 또한 남겨진 기록과 유물로만 그 모습과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전시는 백제인들이 남긴 단서를 모아 용이라는 주제 아래 엮어낸 것이다. 백제인들에게 용은 현실과 상상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백제인들이 상상한 용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하길 바란다.

글. 나선민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

한글로 기록한 옛 노래와 이야기 속으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서울구경 가자스라, 임을따라 갈까부다 -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

2024.10.1.~2025.1.5.



한양가 목판
1880년
20.4×46.5~47.1cm
고적 28331



한양가
한산거사 저음
1880년
20.0×28.5cm
국립중앙도서관

춘향전
1920년
28.8×19.8cm
국립한글박물관



『한양가』에는 당대 최고 인기 소설 『춘향전』의 여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은 판소리 『춘향가』 공연 모습을 선보인 전시장

국립전주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특별전 〈서울구경 가자스라, 임을따라 갈까부다 - 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한 〈서울구경 가자스라, 한양가〉의 순회 전시로, 완판본 춘향전을 더해 전주의 출판 문화를 함께 조명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판매하기 위해 새겨서 찍어낸, 방각본 坊刻本이라 불리는 책들이다. 오늘날의 출판도 그렇지만 책을 만들기 위해 목판에 글을 새기고 찍어내는 일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방각본은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제작된 책이었던 만큼, 당시에 많은 인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글로 만든 책은 단연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책이었을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한글로 된 방각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조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두 책은 노래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다. 바로 서울의 풍경을 그린 한글 가사 『한양가 漢陽歌』와 판소리로도 널리 알려진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춘향전 春香傳』이다.

전시에서는 조선 후기 한양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이 『한양가』의 여러 공간을 직접 거닐 수 있는 전시장을 구성했다. 서울의 일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어휘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전라감영, 전주부, 사설 책방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책들로 전주의 출판문화를 살펴보고 완판본의 꽃, 한글 고전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한글로 기록한 한양가

『한양풍물가』, 『향토한양가』로 불리는 한글 가사 『한양가』가 19세기 중엽 등장하게 된 데

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물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명소를 직접 보고 그린 실경산수화가 활발히 그려졌다. 또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재위 1776~1800)가 한양의 풍경을 그린 그림 〈성시전도 城市全圖〉를 주제로 규장각 신하들에게 「성시전도시詩」를 짓게 한 것도 한양에 대한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 곳곳의 삶과 풍경을 담은 한글 가사도 많이 지어졌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하고 나서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대부가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보고 들은 지역의 삶과 풍경을 노래한 것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산거사의 『한양가』와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한양가』는 많은 사람이 필사해 가며 읽는 즐길 거리가 되었다.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알아본 누군가는 이를 상업용 출판물 방각본으로 재탄생시켰고, 이후 『한양가』는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었다.

향긔한 이야기 꽃, 완산 完山에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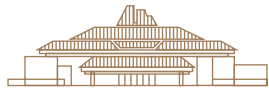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출판은 주로 왕실과 관청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판매를 목적으로 서점에서 만든 책을 따로 방각본이라고 불렀다. 전주에서 만들어진 방각본은 지역의 옛 이름인 완산 完山을 붙여 완판 完板 방각본, 줄여서 완판본이라고 한다. 주로

한글 고전소설의 판본을 구분하는 데 쓰이는 말이지만, 넓게는 전주 지역에서 만든 판매용 옛 책을 두루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전주의 관청에서도 많은 책을 만들었는데, 조선 후기 전라감영과 전주부에서 펴낸 책은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수량이었다. 이들은 전주 지역에서 방각본이 활발히 출판되는 기반이 되었다.

완판본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과거시험 준비에 필요한 경전이나 역사책,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의학이나 농사법에 대한 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바로 한글 고전소설이었다. 한글로 된 재미난 이야기책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았다.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시작하였다는 점, 소설 안에 전라도 방언이 많이 사용된 점, 책의 매수가 대체로 73장에서 84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여러 이본 異本을 합치면 90여 종류가 전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열녀춘향수절가』는 최고의 인기를 누린 베스트셀러였다.

글. 송진총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진주박물관

삶을 빛는 사람들, 사기장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
〈사기장^{沙器匠},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2024.10.1.~2025.2.23.

양산 가야전사 출토 분청사기 제기(좌)
조선
높이 22cm
양산시립박물관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분청사기 제기)

왕실에서 사용한 금속 제기(우)
조선
높이 34cm
국립고궁박물관



합천^{陝川}·장흥고^{長興庫}를 세긴 분청사기 항아리
조선 15세기
높이 27cm
이흥근 기증
동원 127

사기장^{沙器匠}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으로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도구를 이용해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전문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 고려시대부터 음식을 담은 그릇, 글씨를 쓸 때 필요한 문방구, 지붕을 만드는 기와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사기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전시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기장의 삶과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살펴본다.

사기의 다른 이름, 사기

1부에서는 사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사기의 쓰임새 그리고 금, 은, 옥기와 비교했을 때 사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기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 위에 유약을 바르고 1,20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 만든다. 푸른 색의 청자, 청자에 흰색 흙물을 발라 구운 분청사기, 흰색 흙으로 만든 백자를 모두 사기라고 부른다.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고려 때에는 왕과 귀족들이 사기를 즐겨 썼다. 그러나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에는 사기가 왕실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그릇이 되었다.

사기를 만든 사람, 사기장

고려 때 처음 등장한 사기장은 특수행정구역인 소^所에 살면서 사기를 만들었다. 조선이 들어

설 무렵, 사기장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사기를 만들기 좋은 흙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 사기장들은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그릇 만드는 기술을 물려주었다. 2부에서는 대를 이은 사기장과 그들이 만든 사기를 전시하고, 사기를 만드는 방법과 사기장의 작업 공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사기장의 삶

조선 초기 사기장은 사기를 만들어 나라에 공물로 바쳤다. 이후 조선 왕실이 경기도 광주에 국영 도자기 제작소인 사옹원의 분원을 설치한 뒤로 뛰어난 장인이 발탁되어 그곳에서 사기를 구웠다. 지역의 사기장은 지역민을 위해 사기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납부했다. 사기장은 외국 자기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의 전통과 명맥은 오늘까지 이어졌다.

에필로그에서는 사기 조각에 기록된 사기

장의 이름과 지문의 흔적을 조명한다. 그리고 현대 작가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예로부터 이어지는 사기장의 전통을 살펴본다

한평생 그릇을 빚으며 살았던 사기장의 흔적은 수많은 파편이 되어 우리에게 문화유산으로 남았다. 그들이 만든 사기는 생활필수품이자 나라가 나라에, 사람이 사람에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건네는 귀한 선물이었다. 쓰임을 다한 사기 조각에도 사기를 사용한 사람, 사기를 만든 장인의 손길과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십 년 이상 기술을 연마하고 하루하루 수백 개의 사기를 만들며 생계를 이어 나간 사기장을 살펴보는 이 전시로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한 사기장의 마음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

글. 최유미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사기장 김운희, 백자 청화꽃무늬 받
19~20세기
높이 9.6cm
영남요



국립김해박물관

아나톨리아의 숨겨진 제국, 히타이트를 만나다

국립김해박물관 <튀르키예 특별전 - 히타이트>
2024.10.8.~2025.2.2.



긴 항아리
히타이트(기원전 1650년~
기원전 1200년)
높이 75.2cm
보아즈코이-하투사
튀르키예 보아즈코이박물관



‘지혜의 서’를 새긴 점토판
히타이트 제국 시기(기원전 1380년~기원전 1200년)
길이 21.5cm
보아즈코이-하투사
튀르키예 초콜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은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튀르키예 특별전 - 히타이트>를 개최한다. 히타이트^{Hittite}는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에 걸쳐 아나톨리아(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영토)와 북부 시리아의 대부분을 통치했던 대제국이었다. 그러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고학적 유산이 왕들의 계곡에 있는 투탕카멘의 무덤이나 우르에 있는 왕들의 무덤 등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유물에 비해 덜 화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지의 고대 문명은 19세기 점토판 문자가 해독되면서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대 근동지역에서 대제국으로 군림했다는 사실이 비로소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철기 문명의 시작인 히타이트로 떠나는 여정이다.

전시는 4부로 구성했다. 1부 ‘오리엔트 최강의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술을 갖춘 히타이트의 청동 무기와 금속 제작 기술을 조명한다. 하투샤에 자리를 잡은 히타이트는 무르실리 1세(재위 기원전 1620~기원전 1590)대에 아나톨리아를 넘어 남쪽으로 바빌론까지 이르렀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대도시 바빌론을 점령하고 약탈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국의 명성을 얻었다. 기원전 14세기 이후 근동지역의 주목할 만한 제국이된 히타이트는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다. 이 갈등은 기원전 1274년 시리아 북부 카데시에서 무와탈리 2세(재위 기원전 1295~기원전 1272)의 히타이트 군대와 람세스 2세(재위 기원전 1279~기원전 1213)의 이집트 군대 사이의 전쟁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 전투 이후 기원전 1259년에 맺어진 조약은 세계 최초의 공식 평화 조약이었다.

2부 ‘천신의 나라’는 종교적 관용으로 모든 신을 포용한 히타이트 사람들의 종교와 의

례를 살핀다. 히타이트인들은 스스로 “하티 땅의 1,000명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히타이트의 신은 원래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한 나라나, 주변 나라의 신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자신들의 신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른 민족의 신을 인정하고, 포용한 종교적 관용을 가진 나라였다.

3부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한 나라’는 쐬기 문자와 상형문자로 남겨진 히타이트를 살핀다. 점토판에 새겨진 쐬기문자는 히타이트어, 아카드어, 수메르어, 후르리어, 루비아어 등 8개 이상의 언어가 확인되었다. 쐬기문자가 공식^{公的} 문자라면 상형문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로, 도장이나 공공장소의 기념물에는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다.

4부 ‘제국의 삶과 문화’는 법으로 통치된 히타이트의 일상을 다룬다. 토기, 장신구, 일상 생활 도구를 통해 히타이트인의 삶을 소개하였다. 히타이트는 발달한 청동기문화와 뛰어난

난 군사력과 외교력, 종교적 관용을 가진 나라였다. 그 덕분에 그들은 500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많은 종족을 통합할 수 있었다. 히타이트 멸망 후 제철 기술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본격적으로 철기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4~3세기 철기가 들어온 후, 변한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독자적인 철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나아갔다.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에서 시작된 철의 여정은 세계 곳곳에서 역사의 전환을 만들어냈고, 한반도 동남부 가야에서 다시금 화려하게 꽃피웠다. 단순히 무력만으로 지배하지 않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과 개방성은 청동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철기의 시작까지 이르게 했을지도 모른다.

글. 송현경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황소모양 잔
히타이트(기원전 1650년~
기원전 1200년)
높이 13.5cm
보아즈코이-하투사
튀르키예 보아즈코이박물관



청동 비늘갑옷
히타이트(기원전 1650년~
기원전 1200년)
보아즈코이-하투사
튀르키예 보아즈코이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녹슨 때를 벗고 우리 앞에 선 고대의 삶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
2024.10.8.~2025.2.9.



신상神像과 꽃무늬가
있는 거울
삼국
13.5cm
고종 신호리 동호덕 무덤



글자가 있는 거울
원삼국
지름 15.1cm
이진희 거증
전희 3092



신선과 상상의 동물이 그려진 거울
중국
지름 17.0cm
백정양 거증
중 5297

국립나주박물관은 우리나라 삼한과 삼국시대의 거울을 주제로 한 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을 개최한다.

수많은 고대의 무덤이 있지만 발견된 예가 아주 적은 이 시기의 거울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교역의 모습과 거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이번 특별전에 담고자 했다.

전시 도입부인 1부에서는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거울의 제작 과정과 여러 개의 고리 모양 꼭지가 달린 거울(다뉴경多紐鏡)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진 거울 관련 의례를 소개한다. 청동거울은 구리와 주석을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든 것으로, 이를 만들고 제작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 거푸집과 다양한 소재로 만든 거울을 소개하여 당시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 청동거울을 깨뜨리거나 온전한 상태로 천에 쌓아 무덤에 함께 묻거나 집이나 조개무지에서 거울을 이용한 의식을 치른 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한다.

2부에서는 삼한과 삼국시대에 거울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의 인물들을 설정하고, 거울을 가지게 된 배경과 이들

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다섯 명은 '하늘의 뜻을 전한 자, 철기로 부를 얻은 세력가, 바다를 통해 교역을 했던 자, 큰 강 옆에 자리 잡은 이방인, 그리고 삼국시대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거울을 소유했던 이유를 사회 문화사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는 귀중품인 거울을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당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3부는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고대 동아시아의 거울 분포양상과 유통경로를 살펴본다. 당시에는 동아시아 교역이 왕성하여 우리나라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거울이 유행했다. 우리나라도 삼한시대에 중국 한나라 거울의 영향을 받아 본뜬 거울을 제작하였으나 삼국시대로 접어들며 수요가 줄어 일부 계층만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거울들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유통경로와 함께 교류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때 유행했던 거울은 다양한 무늬와 글이 새겨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과 거울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거울은 청동기시대부터 현재를 관통하는 중요한 물건이며,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동거울을 만든 고대 사람들은 거울 한쪽 면을 선이나 원과 같은 무늬와 각종 상상의 동물로 장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내용을 새겼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녹슨 청동의 이면에 감춰진 오래 전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지은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별장에서 나누는 ‘수집가’와의 마지막 대화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2024.9.11.~11.24.



대나무무늬 각병

조선 18세기
백자, 청화안료
높이 41.0cm, 최대 폭 18.5cm
국보
이건희 기증
건희 13

국립춘천박물관은 지난 9월 11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

(이하 〈어느 수집가의 초대〉)을 개최했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2022년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토대로 재구성한

마지막 지역 순회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19건 24점을 포함한

총 282점의 기증 유산이 강원 땅 춘천에서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수집가의 ‘강원 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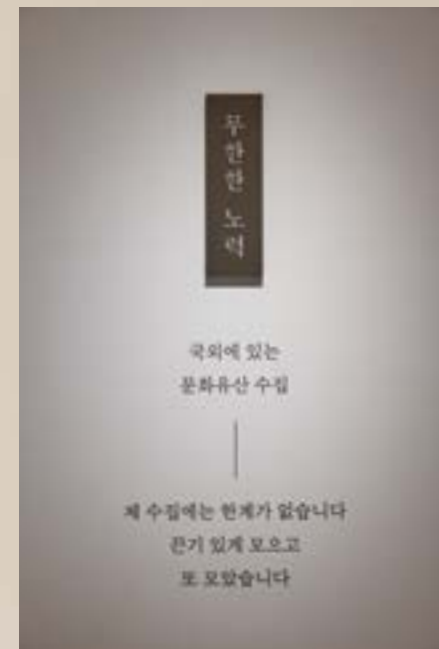
그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어느 수집가의 초대〉 지역 순회전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그 의미를 살리며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은 약 330m²(100평)의 작은 규모이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기증의 숭고한 뜻과 국보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핵심 작품을 놓치지 않으면서, 자연 자원이 풍부한 강원 지역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녹여내고 싶었다.

별장은 자연과 가깝고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지는 휴식의 공간이다. 이름에 자연을 담은 도시, 봄내(춘천의 순우리말)에서 펼쳐지는 수집가와 만남. 아담하지만 특별히 아끼는 수집품으로 꾸민 자연 속 별장으로 초대하는 어느 수집가를 상상했다. 자연과의 만남이 있는 그림, 자연의 재료로 만든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수집과 기증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소주제를 뽑아 전시장을 꾸몄다.

이야기 명패를 따라 듣는 수집가의 이야기

어린 시절 주택가에 붙은 문패는 얼굴 모를 이웃을 가깝게 느끼게 하기도, 호기심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공간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식별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행위이다.

수집가가 특별히 별장으로 손님을 초대한다면 어떤 수집품을 선보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 이건희 회장 에세이에 나타난 문화철학을 엿볼 수 있는 문구들로 8개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명패에 새겼다. 나무 빗갈 명패와 그 아래 더한 짧은 글귀로 수집가가 관객과 나누고픈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야기를 건넨다. 술 향기가 담긴 목가구와 차 한 잔으로 건네는 ‘따뜻한 환영’부터 넉넉하고 여유로운 강원의 자연을 닮은 〈동정추월무늬 항아리〉로



수집가의 ‘이야기 명패’



수집가의 '무한한 노력'으로 돌아온 한국의 문화유산

배웅하는 '아쉬운 작별' 사이에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시대와 재질이 다른 가지각색의 수집품을 모은 공간에서는 여러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 연결하는 '수집의 의미'를, 자연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서화 수집품을 선보이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끌어 내는 '만남의 가치'를 명패에 새겼다. 도자기에 깃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한 옛사람들의 '변화와 도전' 정신, 종교미술품에 투영된 '본질의 공유'를 위한 노력까지 명패를 따라 거닐다보면 대화는 깊어지고, 수집가와 점점 가까워진다.

문화유산 수집과 기증의 가치를 기리는 특별한 공간

고 이진희 회장의 기증은 2만 점이 넘는 방대한 수량과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으로 '세기의 기증'이라는 별칭이 불기에 충분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집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유산을 국민과 나누고자 한 유족의 의지가 있었기에 기증이 실현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 이진희 회장의 문화유산 수집과 기증의 의미를 기리며, 수집가의 철학을 반영한 세 가지 특별한 공간을 준비

했다. '무한한 노력'이 새겨진 명패 아래 수집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외에서 돌아온 우리 미술품들을 모았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Christie's의 1996년 뉴욕 경매 출품 흔적이 남아있는 <청자 철채 인삼 잎 무늬 매병>은 같은 기법과 문양을 가진 매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외에 있던 한국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고자 한 수집가의 노력 덕에 이번 전시에서 귀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수집가의 철학이 반영된 '특별한 감상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고 이진희 회장은 사물의 본질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입체적 사고'를 강조했다. 당당하고 절제된 형태, 흰 바탕에 담백하게 그려진 푸른빛 대나무가 인상적인 국보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 한 작품만을 위한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조명에 변화를 주어 다각도로 각병의 미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을 이루는 형태, 빛깔, 무늬 등 요소 하나하나를 세심히 뜯어보다 보면 수집가의 '입체적 사고'에 공감하게 된다.

수집가의 뛰어난 안목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모인 귀한 문화유산들은 기증으로 나눔의 가치를 더하게 되었다. 명작을 감상하는



둥글게 퍼지는 모양새와 청화안료로 강원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백자 청화 동정추월무늬 항아리>



추성부도(부분)
김홍도(1745-1806 이후)
조선 1805년
55.8×214.7cm
보물
이진희 기증
전화 16

독립된 공간, '최고의 나눔'을 마련하여 기증의 높은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이곳에서 기증품의 백미로 꼽히는 정선의 <인왕제색도>(2024. 9.11.~10.6.)에 이어 김홍도의 <추성부도>(2024.10.8.~11.3.)를 차례로 전시한다.

일상에 깃드는 우리 문화유산의 힘

전시의 마지막은 <동정추월무늬 항아리>이다. 흰 도자기 바탕 위로 펼쳐진 잔잔한 호수를 노 저어 가는 사공의 배웅을 받으며 수집가와 만남을 마무리 한다. 별장 가는 길에 반겨주었던 돌사람이 다시금 안녕을 기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인사와 대화는 관계를 맺는 첫 시작이다. 우리 옛 미술품과 대화하며 '연결'되는 순간이 모여, 고 이진희 회장이 강조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만드는 '한국적 일상'이 실현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일상 한 자락에 우리 문화의 힘이 깃드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강한라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지역 순회전의 성과

대한민국 곳곳에서 함께 누린 수집가의 철학

고 이건희 회장(1942-2020)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을 때 확립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같은 철학이 있었기에, 유족은 뜻을 기려 2만여 점의 수집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년간의 지역 순회전을 추진했다. 2021년부터 4년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110만 명의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느끼는 일상을 선사하며, 기증의 가치를 전파한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은 내년 11월부터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시카고박물관 그리고 영국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의 발자취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명품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서화와 도자기	〈어느 수집가의 초대〉 -근대 서화	〈어느 수집가의 초대〉 -석조 조각과 금속 공예	〈어느 수집가의 초대〉 -현대와 물입	〈어느 수집가의 초대〉 - '이야기 명패'가 있는 강원 별장
서울	서울	광주	대구	청주	제주	춘천
국립중앙박물관 2021.7.21.~9.26.(68일간) 45건 77점	국립중앙박물관 2022.4.28.~8.28.(123일간) 285건 800점	국립광주박물관 2022.10.5.~2023.1.29.(117일간) 170건 271점	국립대구박물관 2023.4.11.~7.9.(90일간) 190건 348점	국립청주박물관 2023.7.25.~10.29.(97일간) 201건 399점	국립제주박물관 2024.6.4.~8.18.(76일간) 187건 360점	국립춘천박물관 2024.9.11.~11.24.(75일간) 169건 282점
23,019명 관람	229,892명 관람	309,733명 관람	263,823명 관람	168,091명 관람	104,834명 관람	

총 전시 기간

646일

총 관람객

1,099,392명

*2024년 8월 말 기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여정

약 1,880 km

보여야 할 것, 연구의 힘



동원고고미술연구소는 동원 東垣 이흥근 李洪根 (1900~1980)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집 문화유산을 기증하고 유족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1981년 설립한 연구소이다. 박물관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논문집(1999년)과 학술총서(2014년)를 창간하여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직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동원학술총서 제6권 『〈태평성시도〉 연구-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와 『동원학술논문집』 제25집을 소개한다.

여섯 번째 동원학술총서 『〈태평성시도 太平城市圖〉 연구-조선 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이수미 지음, 359쪽, 진인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태평성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미술사적·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밝혀내고 있다.

〈태평성시도〉는 2,20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형 8폭 병풍으로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조선시대 풍속화〉특별전에서 처음 선보였다. ‘성곽과 시장을 갖춘 도시’라는 의미의 성시 城市라는 공간을 그렸으며, 문헌에 나오는 한양을 그린 〈성시전도〉나 〈성시화〉와 구별하면서 화면에 ‘태평 太平’ 문자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에 착안하여 저자가 명명한 것이다.

책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전체 7장 구성이다. 먼저 〈태평성시도〉가 출현한 회화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체 경물 景物의 배치와 그 공간 안에 담긴 인물과 동물, 사물, 건축물의 표현을 분석하여 제작 의도를 추론하였다. 그리고 동시대 한국, 중국의 관련 작품들과 비교하여 회화사적 특징 및 위상을 고찰한 뒤, 〈태평성시도〉에 담긴 성시 공간과 인간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작품의 실증적 연구에 주력하면서 제작 과정 및 기능과 수용 양상에 관심을 가진 저자의 안목과 식견이 돋보인다.

책은 초판 1쇄가 발행되자마자 모두 소진되어 2쇄 제작에 들어갔다. 한편, 작년에 발간된 동원학술총서 제5권 『박물관에서 속닥속닥-경주박물관 속 신라인 이야기』(이난영 지음, 333쪽, 진인진) 역시 꾸준한 인기 속에 2쇄를 발행하였다.

『동원학술논문집』 제25집은 2023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개최한 제25회 동원학술대회 발표 내용 중 7편을 글로 엮은 것이다. 고고학·미술사 논문 외에 전시·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수록하여 박물관 활동 실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선각화 뚜껑(경주 고적2713·13430)에 그려진 도상에 대한 일고찰」(김왕국, 국립부여박물관·임혜빈, 국립전주박물관)은 경주 황남리 고분군에서 발

견된 토기 뚜껑의 겉면에 새겨진 도상들을 분석하여, 기존 선각화 토기와는 다른 독창적인 구성과 표현방식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추정하였다.

「대구 평리동 청동유물과 대구지역 소국 小國의 향방」(윤은식, 국립춘천박물관)은 대구 평리동 출토 청동 유물과 경산 양지리 등 주변 지역 출토 고고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대구지역에 있었던 소국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동원컬렉션 일본회화 고찰-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 작품을 중심으로」(이원진, 국립중앙박물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동원컬렉션 중 450여 건에 해당하는 일본회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일 근대미술사에서 동원컬렉션 일본회화가 차지하는 의미를 고찰한다.

「고고학 전시 방향성 모색-국립김해박물관 전시개편을 중심으로」(김혁중, 국립중앙박물관)와 「도자공예 전시개편 사업의 성과와 의미-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을 중심으로」(강경남, 국립중앙박물관)는 2022년 새롭게 단장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과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실을 예로 들어 전시품과 전시 환경, 시대적 요구 등에 따른 전시 방법에 대한 여러 고민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향한 박물관의 교육적 접근」(이지원, 국립대구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022년 진행한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손으로 보는 문화재’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공급자인 박물관의 해석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각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 火力朝鮮〉의 성과와 시청층 분석」(김명훈, 국립공주박물관)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 콘텐츠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태평성시도〉부분, 장원금제자의 행렬
조선 18세기 후반
비단에 색
8폭, 각 폭 세로 113.6cm 가로 49.1cm
약수 4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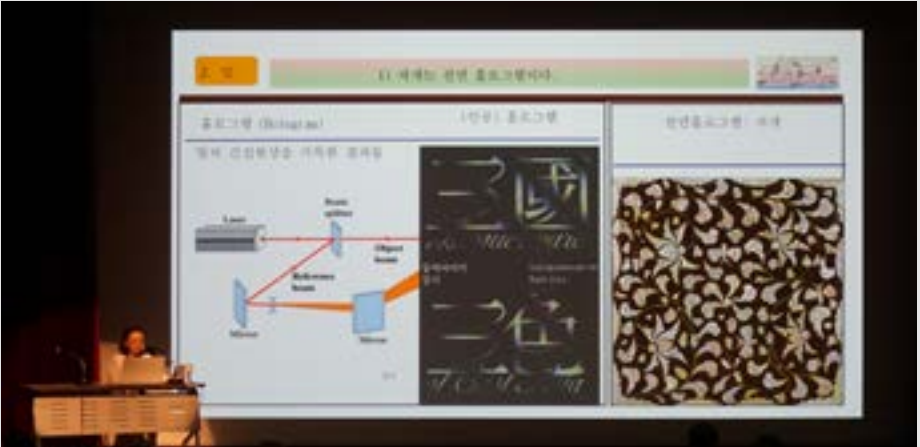
『동원학술논문집』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학술행사·출판 → 정기간행물 → 간행물 검색’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글. 황은순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관

같은 듯 다른 삼국의 칠기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 연계 학술행사

지난 7월 10일 개막하여 9월 22일에 끝난 한·일·중 국립박물관 공동특별전 <三國三色-동아시아의 칠기>에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일·중 국립박물관의 14~19세기 소장품 중 각국을 대표하는 나전칠기, 마키에 칠기, 조칠기 등 대표 명품 칠기 46건을 선보였다. 전시 개최 이후 언론사와 관람객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삼국 모두 옷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수액을 도료로 써서 다양한 칠기를 제작했고, 닳은 듯 다른 듯한 삼국의 칠기가 어떤 미의식으로 발전했는지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9월 6일, 특별전 연계 학술강좌를 개최하여 삼국 대표박물관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한·일·중 삼국의 칠기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인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1000년을 이어온 빛 한국의 나전칠기' 발표 모습

첫 번째 발표는 ‘중국 국가박물관 소장 명·청대 칠기 예술’(장륜평, 중국 국가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장륜평 부연구관원은 중국 전통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유산인 칠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부터 명·청대까지 수천 년 동안 발전한 중국 칠기를 시대별 특징과 종류로 나눠 설명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여러 지역에서 대량 생산된 칠기와 당·송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된 단색 칠기, 채화, 금은 평탈, 나전, 상갑, 도금, 조칠기까지 여러 종류의 칠기를 다루면서, 전시와 연계하여 전시품의 장식기법, 동시기에 유행한 칠기 기형과 장식기법, 무늬 등을 설명하고 특히 명·청대 유행한 칠공예품의 조형미와 세계적인 위상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칠공예’(후쿠시마 오사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였다. 후쿠시마 주임연구원은 먼저 일본 칠기의 이해를 위해 일본 내 가장 오래된 칠기와 8세기 중국 당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된 마키에 칠기 제작 기원을 소개하고 마키에 장식기법과 종류를 설명했다. 또 13세기 중국 송·원대의 불교 영향을 수용하여 제작된 조목 옷칠기와 퇴기 옷칠기, 16세기 조선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나전칠기 무늬 장식 등을 중국과 한국의 칠기와 비교 설명하여 일본 칠기의 발전사에서 외국의 영향으로 크게 전환점을 맞이했던 일본 칠기의 제작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세 번째 발표는 ‘1000년을 이어온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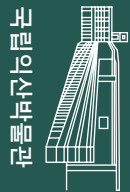
한국 나전칠기’(전인지, 국립중앙박물관)라는 주제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전인지 연구관은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칠기인 나전칠기 기법이 나오기까지 선사~고대의 옷칠 및 장식기법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시대에 배태되어 고려~조선~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최대 장식 칠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나전칠기의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옷칠 빛과 자개 빛이 만나 이루어진 광학의 결정체로의 나전칠기를 옷칠 빛깔로 소개하는 최근 보존과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나전칠기를 배출한 고려~조선시대 나전칠기의 제작 배경, 기형과 장식기법, 시대 변화에 따른 나전칠기의 사회적 의미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근현대까지 이어진 한국인의 나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 연계 학술강좌는 동아시아 공통의 천연 도료인 옷칠을 가지고 한·일·중 삼국이 서로 다르게 발전시킨 칠공예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전시의 이해를 높이고, 삼국 칠기의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고유의 칠공예 문화를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국의 문화적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교류를 위한 문화적 유대감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글. 오세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

6



한국의
시작점
익산

금강과 만경강이 흐르는 해안 평탄지 익산. 이곳에서 고조선의 준왕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준왕은 익산에서 한왕으로 출발했다. 삼국시대 백제 때 이곳은 금마저(金馬居)라는 새 이름의 거점이었다. 웅성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왕궁과 사찰이 건립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 인류의 세계유산으로 남아있다. 새 미래를 꿈꾸며 새 시대를 열었던 이들의 땅, 익산으로 향했다.

터

1
미륵사지



왕궁리오층석탑
금동제 불입상
동일신라
전체 높이 17.4cm,
불신 높이 9cm
국보
선수 2130



자동차 15분 10km

2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이범수

금제사리상자와
유리제 사리병
동일신라
금속
국보
선수 2123·2127



3
구룡마을 대나무숲

자동차 15분 10km

자동차 5분 3km



국립익산박물관

4

탑

꿈꾸는 돌, 미륵사지

현존하는 한국의 석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그 자체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사찰 전체의 일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미륵사는 동원, 서원, 중원의 삼원(三院) 구조로 가람을 배치한 거대한 사찰이었고, 그 가운데 서원(西院) 앞에 세워진 석탑이 지금 우리에게 국보로 남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 것이다.

『삼국유사』에 미륵사의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무왕과 왕비가 용화산 사자사로 행차할 때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했는데 이 신비한 경험을 기리고자 연못을 메우고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특별한 배경만큼이나 건축 방식도 비범했다. 석탑의 등장이다. 화재에 취약한 목탑을 번안해 돌로 탑을 만들기 시작한 건축 양식의 이행 과정이 미륵사지 석탑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백제 때부터 엄청난 존재감으로 그 자리에서 있던 무게 1,830톤의 석탑. 세월의 풍화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일제 강점기에는 존재를 흔

드는 아픔을 겪었다. 탑의 보수작업에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다. 석탑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무시한 이 조치는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탑에서 콘크리트를 떼어내려 시작한 해체 보수작업은 20년에 걸친 복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639년, 왕후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미륵사지 석탑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리장엄구는 건립 당시 봉안한 모습 그대로 비밀스러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아픈 역사를 걸어내기 위해 시작한 복원과 정에서 찾아낸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최대 면적을 자랑했던 미륵사지. 절은 사라졌어도 그 터와 탑은 오늘에 남아 백제의 숨결을 지키고 있다. 미륵사 뿐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익산은 온통 '백제역사 유적지구'(2015년 충남 공주·부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다. 미륵사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왕궁리 유적지에는 목탑을 닮은 외형에 사리장엄구 등을 품고 있던

'오층석탑'이 있다. 또한 그 지척에는 상당한 규모였으리라 짐작되는 사찰, 제석사 터가 자리하고 있다.

반신불수의 백제여
가늘 길 없는 세월로
몸 세운
지조여
이승의 자를 세워
그 폐허 어디쯤을 켜들
맛동방의 큰 키 보이실까
...
무거운 꿈을 꾸는
천년이어
너, 이제 탐으로써는 날
잃어버린 세월 위에
도술천 아득한 나라
질푸른 피가 도는
미륵불이 되리라

-이동희 「꿈꾸는 돌, 미륵사지-백제기행9」



미륵사지 석탑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김지호



구룡마을 대나무숲

원석에서 보석까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익산은 예로부터 보석 세공과 관련 깊은 곳으로 1970년대에는 보석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 역사는 백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왕궁유적지에서 금도가니, 유리도가니, 철도가니 등이 발견되며 궁궐에서 필요한 귀금속 세공을 전담했던 공방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 때부터 시작된 화려하고 섬세한 세공기술은 이후 익산에 보석 가공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익산의 세공 문화를 만나고 싶다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추천한다. 11만 8천여 점의 보석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름 그대로 ‘보석 박물관’은 채굴부터 연마, 가공까지 보석이 탄생하는 과정은 물론, 일상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보석을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다. 월별 탄생석과 다양한 보석들의 유래, 장신구의 역사와 같은 전시 구성도 흥미롭다. 무엇보다, 기술을 뛰어넘어 예술로 승화된 작품을 보는 즐거움이 크다. 특히, 순금으로 만든 ‘미륵사지석탑’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보석 중의 보석이다. 백제 때부터 이어온 세밀하고 섬세

한 기술, 광물을 보석으로 만들기까지 혼과 땀의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초록 댓잎의 생명력, 구룡마을 대나무숲

미륵산 자락에 있는 구룡마을에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대나무 군락지가 있다. 우리나라 3대 5일장의 하나였던 충남 강경 5일장에서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팔려나갔던 구룡마을의 대나무는 익산의 중요한 소득 자원이었다. 대나무밭은 황금이 자라는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생금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구룡마을을 감싸고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라보는 대나무 군락지는 사계절 초록을 머금고 있는 커다란 쉼표와도 같다. 미륵산 둘레길을 산책하다 구룡마을에 닿으면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길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생명의 광장, 만남의 광장, 명상의 길 등의 이름을 따라 대나무숲을 천천히 걷다 보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홉 마리 용이 수호신이 되어 마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을 간직한 구룡마을. 산책길 주

미륵사지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
문의: 063-859-3873
운영시간: 24시간 개방(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소: 전북 익산시 호반로 8
문의: 063-859-4641
운영시간: 10:00~18:00(월요일 휴무)
입장료: 성인 3천 원, 청소년·군인 2천 원, 어린이 1천 원

구룡마을 대나무숲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룡리 541-3
문의: 063-859-3263
운영시간: 24시간 개방(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국립익산박물관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문의: 063-830-0900
운영시간: 09:00~18:00(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국립익산박물관

변으로 펼쳐진 왕대, 숲을 빼곡히 메운 작은 숨대와 검은 대나무라 불리는 오죽 등 다양한 대나무는 용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지친 심신을 지키고 보살펴 주니 말이다.

익산을 방문하면 유독 마와 관련된 맛집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백제 무왕의 서동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무왕의 다른 이름은 서동으로 ‘마를 캐서 파는 아이’라는 뜻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동이라 불리던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를 사모해 신라에 사는 아이들에게 서동요를 지어 부르게 하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마를 주며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전해진다.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익산에는 마 재배와 함께 다양한 특산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마를 활용한 누룽지, 마를 넣은 각종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달콤한 마 아이스크림까지 맛볼 수 있다.

백제의 미소, 국립익산박물관

1980년 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는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작업은 1996년까지 이어졌다. 과정에서 사찰 규모와 가람 배치를 확인했고 창건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문화유산 19,000여 점을 수습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보존하고 연구·전시 ‘공간’이 없었다. 바로 미륵사지 한 귀퉁이에 소규모 유물전시관이 세워졌고, 이곳은 무력 무력 성장하여 2019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한다. 미륵사지가 품어 키워낸 ‘국립익산박물관’이다.

백제 사찰의 너른 터 남서쪽에 자리한 국립익산박물관에는 사비 백제의 신도시였던 익산의 역사와 미륵사의 장엄한 기록이 있다.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그 가치를 제대로 짚어 내고 음미할 수 있는 백제 문화가 있다. ‘익산’에서 시작한 ‘백제’를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둘러봐야 하는 곳이다.

익산은 강물이 범람하여 생긴 비옥한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옥야(沃野)라는 옛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의 관문이자 개방과 변역의 땅으로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땅이다. 뚜렷한 정체성과 화려한 왕궁 문화를 소중하게 보듬어 온 익산. 닿는 걸음마다 백제의 미소를 발견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정리. 편집팀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충주박물관,

첫 삽을 뜨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열네 번째 소속박물관이 될 국립충주박물관이 지난 8월 26일 오후 착공식을 거행했다.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듯 많은 시민이 착공식에 함께하여 박물관 건립의 시작을 환영해 주었으며, 외국 건축가를 포함한 설계자들이 박물관의 건축 철학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 크게 하였다.

국립충주박물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공원 안에 자리를 잡고 2026년 연말 개관을 목표로 하여 본격적인 건립 사업에 들어간다. 박물관은 총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20,000m²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8,965m², 지상 3층 규모로,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위한 전시실·수장고·보존과학실·교육실·(가칭)어린이박물관·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충주를 비롯하여 남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예로부터 수려한 물길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독창적인 문화를 이루어 왔으며, 무엇보다도 역사와 문화의 교차로이자 문화융합을 상징하는 ‘중원문화’로 널리 알려져 왔다. 중원문화권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삶을 이어왔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고대 이후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에서 문화와 지리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새롭게 건립하는 국립충주박물관은 유구한 중원문화의 전승과 보존, 공유를 가치로 하여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박물관 건축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건물 배치는 대지 안에 자라고 있는 세 그루의 아름드리나무와 역사적 장소인 탄금대를 배경으로 남한강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을 고려하였다. 설계 공모 당시 ‘기존 수목을 포함한 조경 환경에 건축물이 스며들 수 있게 설계하고, 내부 공간은 근경, 중경, 차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관이 펼쳐질



착공식 행사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어 내·외부의 완결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받았다. 박물관 건축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중원문화의 유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가 즐거운 박물관’을 만들고자 전통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문화 불균형 해소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충주박물관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지역 문화 인프라와의 소통과 공감에 최우선을 두고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근 K-컬처는 영화나 음악 등 대중문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 자체에 대한 향유와 탐구로 확장하



조감도

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에 뿌리를 둔 역사와 문화 역시 K-컬처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충주박물관은 앞으로 젊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지역 문화와 동행하는 K-컬처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

모쪼록 건립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어져 박물관 개관을 모두 반갑게 맞이하는 시간이 조만간 다가오길 손꼽아 기다리며, 국립충주박물관이 중원문화를 상징하고 역사적·문화적·지역적 맥락을 성공적으로 담은 멋진 박물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글. **성재현**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관

국립충주박물관 투시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친구에게 배웠어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어린이 관람객



나누리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이부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까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낯선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 설레는 발걸음도 잠시, 북미 원주민의 삶을 엿본 관람객 대부분은 사뭇 편안한 얼굴이 된다. 따뜻하게 공감하고 위로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 관람객은 조금 다르다. 마냥 신기한 표정으로 전시장 곳곳을 주름잡으며 북미 원주민을 마주한다. 무엇이 어린이의 또 다른 감각을 깨웠을까? 특별전을 방문한 나누리, 나예준, 유동윤 어린이에게 답을 들어봤다.

Q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관람은 재미있었나요?

누리 네!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중에서 '나만의 북미 원주민 캐릭터 만들기'가 가장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북미 원주민의 의복을 선택하고, 얼굴을 꾸미고, 옷을 입히는 체험인데요.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QR 코드를 이용해 소장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냥 전시만 보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시를 보고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예준 누나처럼 캐릭터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북미 원주민의 집 모형을 만져보는 것도 신났어요. 학교에서 세계의 집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그때 종이랑 나무젓가락이랑 끈으로 티피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전시를 보면서 그게 있어서 신기했어요. 책 속에 있던 것이 짠~ 하고 박물관에 있었어요.

동윤 저는 거대한 티피 텐트가 제일 좋았어요. 텐트에 그려진 전투 그림도 인상 깊었고요. 보기만 해도 신기했는데 그 옆에 모형 텐트를 만져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어요. 실제 티피 텐트 가족으로 만들어서인지 만질 때마다 기분이 색달랐어요. 그래서 소원이 생겼는데요, 북미 원주민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못하겠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다 놓고 싶어요! 북미 원주민들이 들소를 타고 다니는 그림도 떠오르는데요. 저는 자동차나 기차처럼 탈 것을 종종 그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북미 원주민들이 탄 들소를 그릴 거예요!

Q 전시를 보며 북미 원주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동윤 원주민이 미국 본토 사람이라는 점이요!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전시에서 원주민이 미국에 산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옷도 요즘이랑 다르게 깃털 등 동물에게서 나온 것들로 만들어져서 신기했어요.

예준 인디언이 아니라 북미 원주민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랑 티피 만들 때도 인디언이 살던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디언이 아니라 북미 원주민이라고 말해 줄래요.

누리 부족마다 집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환경에 따라 어떤 부족은 텐트에서 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족은 진흙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공간에서 생활하기도 하더라고요. 전시된 집 모형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원주민의 삶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아! 벽에 새겨진 글도 기억에 남는데요. 글을 읽을 때마다 원주민의 삶과 우리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잠언을 읽고 나서 원주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잘 알 수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와 같은 내용의 잠언을 양희은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원주민들도 저처럼 잠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유동윤

맑은 하늘은 어여쁘다.
푸른 풀은 어여쁘다.
하지만 더 어여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다.

-오마하족 잠언

Q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미 원주민에 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동윤 책에서 본 북미 원주민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에서 잘 살아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시를 보고 우리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리 TV나 책에서 북미 원주민이 추장 모자를 쓰고 말을 타는 장면을 봤는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자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지난 7월에 박물관에서 진행한 전남대 김봉중 교수님의 연계 강의 ‘북미 원주민의 어린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듣고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강의에 이어 전시도 봤고요.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듣고 나니 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미 원주민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요. 미국에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Q **북미 원주민을 말할 때 자연을 빼놓을 수 없죠?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자연은 무엇일까요?**

누리 저는 자연이 공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시를 보고 자연이 제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쓰기 전에 자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예준 저는 자연을 평화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랑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산 위에서 보는 풍경이 좋아요. 산에서 나는 냄새도 좋고요. 산에 가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장수풍뎅이 집도 되고, 다람쥐 집도 되고, 새집도 되고 그래요. 서로 함께 평화롭게 모여 살고 나누면서 사는데 막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지 않을 때는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상상하면서 자연 풍경 그림도 그려요. 풀숲 가운데 물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산에서 동물들이 뛰어놀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이요. 저도 그림에 들어가서 동물, 곤충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동물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져



나예준

서요. 근데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동물이랑 친구처럼 같이 어울려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동윤 자연을 사랑하고 깊이 존중한다는 원주민의 태도에 공감해요. 자연을 지켜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텀블러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Q **전시 관람 후 마음속에 깊이 남은 것을 말해 주세요.**

누리 원주민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는 남 탓을 할 때가 있는데, 원주민들은 문제를 본인에게서 찾아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느껴졌어요. 친구랑 싸우게 되면 원주민들처럼 친구 탓보다 저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우울해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예준 전시에서 본 들소랑 같이 뛰어놀고 싶어요! 들소랑 친구가 되어서 산에도 오르고 숲에도 가고 바다에도 풍덩 빠져 보고요. 다리가 너무 아프면 들소의 등에 가끔 타긴 하지만, 그래도 들소 옆에서 같이 걸어 다니며 세상을 보고 싶어요.

동윤 북미 원주민 친구들은 자연을 ‘인간’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연을 자신과 똑같이 여기는 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북미 원주민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탄소 배출량이란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기후변화도 있고요. 최대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은 당연하고요, 앞으로는 식물도 좀 더 많이 심을 예정이에요.

정리. 편집팀

잠시 멈춤

박물관의 밤, 탑의 시간을 거닐다

Night at the Museum,
Wandering in a Pagoda's time

모든 조명이 꺼진 순간,
빛과 소리가 솟아올라
석탑을 타고 흐른다.

수백 년 전 들에 새긴 이야기를 불러내며
좌충을 감싸고, 마음에 스며든다.
찰나에 찾아온 영겁의 진리.
박물관의 가을밤이 환하다.



QR코드에 접속하면 13.5m 높이 <경천사 십층석탑>을 빛으로 수놓은
외벽 영상^{Media facade}*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외벽에 발광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국보순회전, 하반기에도 모두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9월 6일부터 12개 지역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순회



합천박물관 <금관과 금방울, 어린 영혼과 함께하다> 관람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만든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가 성황리에 상반기 전시를 마치고 9월 6일부터 새로운 지역에서 순회를 시작했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거주민의 문화누림 양극화를 덜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올해 상반기부터 국보급 문화유산 6종을 지역별로 순회 전시하고 있다. 순회전의 주인공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농경문청동기, 화려한 신라금관, 갓 맑은 하늘빛의 고려청자, 순백의 달항아리 등 국보·보물 총 22건 29점이며, 상반기에 경남 합천박물관, 충남 보령석탄박물관, 경북 상주박물관, 전남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전북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당진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을 돌았다.

상반기 순회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급 문화유산을 직접 보기 위한 지역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이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흥행했다. 합천박물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 대비 162%가 증가한 수치인 4,020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역시 작년 대비 3배 가까운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상주박물관도 작년 대비 2배에 달하는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았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하반기 전시는 충북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강원 양구백자박물관, 전북 장수역사전시관, 경북 고령 대가야박물관, 경남 함안 박물관, 전남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새로운 여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에도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박물관이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반기 순회전(9~12월) 주요 내용						
지역	충북 증평	전북 장수	경북 고령	전남 해남	경남 함안	강원 양구
개최지	민속체험박물관	장수역사전시관	대가야박물관	공룡박물관	함안박물관	백자박물관
기간	9.6.(금)~12.8.(일)	9.13.(금)~12.1.(일)	9.26.(목)~12.15.(일)	10.2.(수)~12.8.(일)	9.30.(월)~12.15.(일)	9.12.(목)~12.8.(일)
전시명	시대를 담다, 농경문청동기	금관총 금관, 그리고 이사지왕	금관과 금방울, 어린 영혼과 함께하다	영원한 동행, 상형토기 이야기	도자기에 핀 꽃, 삼강청자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
지역별 협력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유럽 최대 박물관 축제에 우뚝 서다

2024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 축제 참가한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지난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 ‘2024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 축제(Museumsuferfest)’에 참가해 충청남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렸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이번 축제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백제금동대향로의 가치와 매력을 전파해 축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국보 백제금동대향로와 역사와 기능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과 향로 팝업북을 만들어 보는 놀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유럽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번 축제는 국립부여박물관과 백제 문화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자리였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앞으로도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만나는 가을·겨울 교육프로그램

유아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진행

국립김해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유아 또는 가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가야나라 공작소_장신구편’, ‘안녕, 가야_해상왕국편’,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을 운영하고 있다.

‘가야나라 공작소_장신구편’은 11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유아 단체 대상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가야 지배자의 장신구인 금동관과 금귀걸이를 살펴보거나 활동지를 활용해 다양한 장신구를 표현하고 금동관을 창의적으로 제작해 보는 등 가야의 생활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주말에도 교육프로그램은 계속된다. ‘안녕, 가야_해상왕국편’은 바다를 터전으로 해상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친 가야 사람들을 살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상설전시 연계 활동지에서 가야의 배와 패총을 이해하고, 패총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한다.

11월 6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다문화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은 가야 초대 국왕인 김수로왕의 탄생과 허황옥의 결혼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등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11월 8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첫째·둘째 주 금요일은 유아 단체 대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첫째 주 토요일에는 건국 설화 인형극을 진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김해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에서 만난 한가위 문화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흥겨운 민속놀이

국립박물관이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국립전주박물관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박물관 옥외뜨락에서 민속놀이, 전래놀이, 전통 생활 도구 체험과 기념품 이벤트를 포함한 ‘2024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을 열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박물관 앞마당에서 ‘전통 문양 그림톡 만들기’, ‘평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판소리 흥보가’, ‘날뽕복춤’ 등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문 교육사 및 이수자가 선보이는 무대를 선보였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특별전 <도자기, 풍류를 품다>와 연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광박네트 포토 부스’에서 촬영하고 지정한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굿즈를 증정하는 SNS 이벤트, ‘달항아리 모형 키링 만들기’ 타령장단 마당극 ‘호랑이 오빠 일쑤’ 특별 공연을 펼쳤다.

추석 기간 국립박물관 방문객들은 각 소속박물관이 준비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다. 국립박물관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명절 행사를 기획해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창작 가족뮤지컬 <드래곤하이 스페셜> 개막



창작 가족뮤지컬 <드래곤하이 스페셜>이 11월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무대에 오른다.

<드래곤하이 스페셜>은 머리에는 뿔, 엉덩이에는 꼬리가 난 ‘하이’가 자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떠난 모험담을 그린 뮤지컬이다. 용의 나라를 여행하며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하이’를 보며 관객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

뮤지컬 배우 12명이 펼치는 화려한 군무, 무대를 뒤덮는 동화 같은 애니메이션,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볼거리도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래곤하이 스페셜>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기간 | 9월 28일~11월 24일 수~금 11시 /

토~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30분(월·화 공연 없음)

관람 시간 | 70분(인터미션 없음)

관람 연령 | 24개월 이상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브러쉬씨어터(1600-8534), 국립박물관문화재단(1544-595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유의 방 스노우볼’ 출시

집에서도 만나는 ‘반가사유상’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사유의 방 스노우볼’을 출시했다.

‘사유의 방 스노우볼’은 사유의 방에 전시된 ‘반가사유상’ 두 점의 모습과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소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사유의 방’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일상에서도 누리길 바라는 의도로 ‘사유의 방 스노우볼’을 기획했으며, 3D 프린터를 이용해 더욱 섬세한 반가사유상을 구현했다. 색상은 흰색, 검은색, 금색으로 구성됐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오프라인 상품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8.16.~9.15.)						
보임	2024-08-19	행정사무관	김경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2024-09-09	학예연구관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24-09-13	학예연구관	최홍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	국립광주박물관장
전임	2024-08-29	행정주사보	홍서연	국립중앙극장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2024-08-29	행정서기	성문석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9-09	행정사무관	이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9-13	시설서기보	김배설	안동시	→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출	2024-08-29	행정서기	김수정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2024-09-02	학예연구사	민길홍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2024-09-09	행정사무관	고민정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2024-09-11	행정사무관	진보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문화체육관광부
수습임용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안지영	수습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전수경	수습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이준형	수습임용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이하린	수습임용	→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조민영	수습임용	→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장지인	수습임용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김소현	수습임용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정덕근	수습임용	→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2024-08-26	9급재용후보자	서희주	수습임용	→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운영과
지원근무	2024-09-01	전 ¹ 운영주사보	변기중	국립대구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승진	2024-08-28	행정서기보	구보희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행정서기
	2024-09-01	학예연구사	이기현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복지
	2024-09-01	전 ¹ 운영주사보	우현욱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지
	2024-09-01	방호서기보	민경하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지
휴직	2024-09-12	방호주사보	정강오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	복지
	2024-08-26~2025-02-25	공업주사보	남상구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휴직연장
	2024-09-09~2025-09-07	학예연구사	김지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	휴직

10월을 가득 채울 밴드 음악 속으로

10월엔 박물관문화향연 공연이 전국을 찾아가는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물론이고, 공주, 익산, 나주 등 국립박물관에서 다양한 밴드들이 무대에 오른다. 마침 선선한 바람에 단풍을 구경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박물관을 찾은 밴드들과 함께 색색으로 물든 가을을 마음껏 즐겨보자.



국립중앙박물관 × 국악브라스밴드 ‘시도’

일시: 2024.10.12.(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국악브라스밴드 ‘시도’는 동·서양의 관악기(태평소, 색소폰, 트롬본, 수자폰)와 타악기(뿔과리, 장구, 드럼)로 구성된 독특한 팀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Attempt)’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팀 이름처럼 어디서든 판을 벌일 수 있고,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잡는 음악이 특징이며 우리나라 전통 연희와 브라스밴드가 결합한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을 선사한다.

국립공주박물관 × 유다빈밴드

일시: 2024.10.5.(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야외광장
싱어송라이터 유다빈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로, 2020년 정식 데뷔했다. 유다빈(보컬), 이준형(기타), 조영윤(베이스), 유명종(키보드), 이상운(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컬 유다빈은 엠넷(Mnet), ‘슈퍼스타K(케이)’에 출연해 탑(TOP)10에 진입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다. 시적인 작곡과 멤버들의 뛰어난 음악 실력을 기반으로, 2019년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대상, 2020년 ‘ALL STAR 뮤지션 페스티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꼭 들어봐야 할 한국의 10대 밴드’로 선정된 바 있는 만큼,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이며 계속해서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일시: 2024.10.19.(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역사의 거울(야외광장)
펑크 음악을 기반으로 추억을 노래하는 밴드, 극동아시아타이거즈는 관객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한다. 펑크 음악과 더불어 즐거운 입담과 대중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신나고 유쾌한 공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 박소은

일시: 2024.10.26.(토) 오후 3시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야외
포크, 팝, 록, 컨트리 등 여러 스타일을 아우르며, 유려한 노랫말로 청춘의 이야기를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박소은. 뛰어난 가사 전달력과 개성적인 음색으로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꾸밈없이 그려낸다. 고등학생이었던 2015년 Mnet ‘슈퍼스타K7’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2016년 스무 살의 나이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입상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주목받았다. 발표하는 곡마다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가 엮보이는 사운드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94회	18:00~18:30		19:00~19:30	
	서화관	야외 전시장	기획전시실	선사·고대관
10.2.	진천 영수사 패물 불교회화실(203호) 전시과장 정명희	석조문화재 보존 복원과 관리 야외 석조물 정원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앞) 보존과학부 조연태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8) 기획전시실 전시과 김혁중	황남대총, 마립간의 왕권과 무덤 신라실(108호) 고고역사부 류정한

10.9.	한글날			
-------	-----	--	--	--

795회	18:00~18:30		19:00~19:30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기증관	선사·고대관
10.16.	무령왕릉 꽃모양 금꾸미개 백제실(106호) 교육과 윤지연	범종 소리의 과학적 의미 고려Ⅱ실(116호) 보존과학부 이승은	유강열과 현대관화 기증Ⅳ실(205호) 디자인팀 김미소	박물관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 신라실 입구(108호) 어린이박물관과 김혜정

796회	18:00~18:30		19:00~19:30	
	역사의 길	조각·공예관	조각·공예관	서화관
10.23.	경천사 십층석탑 역사의 길 전시과 신소연	한국의 범종 금속공예실(302호) 유물관리부 김민송	고려 상형청자 청자실(303호) 교육과 강경남	조선시대 회화에 표현된 색과 재료 서화실(202-4호) 보존과학부 박미선

797회	18:00~18:30		19:00~19:30	
	조각·공예관	선사·고대관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
10.30.	황복사터 금제불입상과 아미타불좌상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양수미	과학으로 본 무령왕릉 출토품 백제실(106호) 보존과학부 최기은	백자의 백색과 안료 분청사기·백자실 (304·305호) 어린이박물관과 김현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 근대미술품 소개 일본실(310호) 세계문화부 이원진



webzine.museum.go.kr

표지 이야기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은 그가 수집한 문화유산 수만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 기증자의 고결한 마음을 잊지 않고자 2022년부터 지역의 국립박물관을 순회하며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약 1백만 명의 관람객을 만난 국내 순회전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마무리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 전하는 기증의 가치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